

# KCC 2016 Trip Report

## 학술대회 참가 보고서

대회 명: 2016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KCC 2016)

주최: 한국정보과학회

장소: 제주 ICC (및 부영호텔)

일정: 2016-06-29 (수) ~ 2016-07-01 (금)

컴정학부 09 학번 이승휘



그동안 연구한 "인텐트 퍼즈 테스트 기반 안드로이드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 방법"을 주제로 처음으로 논문을 써보고 발표하게 되었다. 비록 구두 발표가 아닌 포스터 발표였지만 그래도 논문을 어떤 식으로 작성하고 발표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포스터 발표였지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표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꽤나 고심했었는데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다. 한번에 90 개 가량의 포스터 발표가 진행되었을뿐더러 위치가 가장 끝 쪽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것 같다. 다음 기회가 있다면 더 열심히 준비해서 구두 발표로 제대로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발표 후에는 세미나를 몇가지 경청했는데 사실 모든 말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기억에 남는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 좋은 경험이었다.

학회가 제주도에 열렸기 때문에 화중이와 차를 렌트해서 몇군데 관광도 다녔다. 특히 기억에 남는 곳은 넥슨컴퓨터박물관이었는데 학교에서 배우기만 했던 컴퓨터들이나 부품들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다. 또, 기억 속에 남아있던 아주 옛날 게임 등도 시대별로 잘 정리되어있어서 감회가 새로웠다. 제주도에 있는 기간 동안 날씨가 좋지 않아서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근 5년 중에 여러 가지로 가장 유익한 경험이었고 생각된다.

## 컴정학부 11 학번 이화중



“인텐트 퍼즈 테스트 기반 안드로이드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 방법”라는 주제로 학술대회에 참가하였다. 13:20 에 시작하는 포스터 세션 P1.1 에 배정받아, 김포공항에서 10:00 에 출발하는 항공권으로 변경하고, 예정했던 시간보다 일찍 출발하였다. 그럼에도, 항공기가 연착된 데다가 안개가 심하여, 배정 받은 시간에 가까스로 도착할 수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발표자료를 붙이고, 평가위원을 포함한 질문자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이따금씩 자료를 보고 가는 사람들뿐이었다. 밤새 승휘 형께서 열심히 발표 준비를 하셨는데, 열심히 하신만큼 다 내보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상당히 아쉬웠다.

이번 학술대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 각자의 다양한 IT 분야에 전념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학부생 수준에서는 획득하기 힘든 지식이나 생각하기 어려운 아이디어, 간과하기 쉬운 화두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SK C&C 이호수 사장님의 기조연설을 듣고 Data Transformation 과 AI 의 발전 상황이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견문을 좀 더 확장할 수 있었다는 점이 아주 뜻깊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